

열왕기하 9.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와 ‘이세벨’ 여왕의 최후 (왕하 9 장 1 – 37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요람’의 군대장관이었던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를 통해 기름부음을 받은 후,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제 10 대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여, ‘요람’과 ‘이세벨’ 여왕을 죽인 뒤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불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요람’을 병문안 하기 위해 찾아온 유다 왕 ‘아하시야’는 예후가 일으킨 반란에 휘말려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예후’ (1-13 절)

1)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에게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1-4 절).

-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단단한 각오를 하라는 의미!
 - 성도는 항상 허리를 동이는 삶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함!
- 그럼 ‘엘리사’의 제자가 허리를 동이며 감당해야 할 그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 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골방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
 - ②.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전할 것!
 - ③. 그 후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지체치 말고 도망칠 것!
- 이때 특별히 4 절 주목하면, ‘엘리사’가 선택한 제자는 ‘청년’이었다고 기록! (어떤 성경엔 소년)
 - 아마도 당시 아람과의 전시 상황에서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후, 급히 빠져 나오려면 젊고 민첩한 젊은 제자가 적임자였을 것!

2) 그럼 이 같은 중대한 사명을 받은 젊은 선지자는 과연 그 사명을 잘 완수했나요? (5-10 절)

- 청년 선지자는 ‘엘리사’가 지시한대로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곧바로 도망쳤음! -> 곧 완벽하게 맡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
- 특별히 이때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 (6-10 절)
 - 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
 - ②. 당신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시는 것!
 - ③. 이때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 것!
 - > 이는 곧 ‘아합’의 모든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말씀!
 - ④. 그 후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

➤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 만약 내가 당시 이 청년 선지자였다면, 이런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것도 ‘아합’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맘이 들었을까?
-
-

3) ‘예후’가 젊은 선지자를 만난 후 돌아오자, 동료 장군들 중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물었나요?

- 11 절,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 곧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전한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물었음!
- 특별히 이때 그는 젊은 선지자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칭하였음!!
 - 세상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젊은 선지자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
- 이때 동료의 질문을 가볍게 넘기려던 ‘예후’에게 다른 장군들이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요청함!
 - 결국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알림!
- 그럼 이 같은 답을 들은 동료 장군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3 절)
 - 모두가 즉시 자신의 옷을 가져다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추대함!!
- 그런데 특별히 11 절을 보면, 저들은 다 그 주인 곧 ‘요람’의 신복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
 - 이는 곧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후’를 따르게 하신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평소 저들이 겉으로는 ‘요람’을 모시고 충성하는 듯 했으나, 그 마음은 ‘예후’를 더 존경하며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

2. 드디어 ‘예후’가 ‘요람’을 죽인 후, 북이스라엘의 제 10 대 왕이 되었습니다. (14-26 절)

1)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14-16 절)

- 특별히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이었음!
 - 이때 ‘요람’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와 있었음!
 - 결국 북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전권을 ‘예후’가 가지고 있었음!
- 그 무렵 ‘예후’는 아무도 자신의 반란을 왕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 성을 완전히 통제한 뒤, 병거를 타고 기습적으로 ‘요람’이 머물던 이스라엘 성으로 진격하였음!

2) 이때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 하나가 ‘예후’가 이끄는 군대를 보고, ‘요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17-19 절)

- 보고를 받은 ‘요람’은 즉시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로 오는 군대에게 ‘평안이나?’ 물어보게 함!
 - 이는 저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하게 한 것임!
 - 그럼 이때 ‘예후’는 ‘요람’이 보낸 사자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고 명함!
 - 곧 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요람’을 버리고 자신의 편에 서라고 명령했다는 것!
 - 자신이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은 다른 사자를 보내어 자신을 향해 오는 군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게 하였음!
 - 그러나 ‘요람’이 보낸 두 번째 사자도 ‘예후’의 말에 순종해 ‘예후’의 편으로 돌아섬!
- 3) 성을 지치던 파수꾼은 ‘요람’이 보낸 두 번째 사자도 돌아오지 않았고, 가까워지는 군대의 병거들을 보니 다 ‘예후’의 병거들로 보인다고 ‘요람’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22 절)
- 그럼 병거들이 다 ‘예후’의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부상 당한 상태에서도 직접 병거를 타고 유다 왕 아히사야와 함께 ‘예후’를 마중 나감!
 - 그럼 왜 ‘요람’은 몸이 아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후’를 맞이하고자 성 밖으로 나갔을까?
 -
 -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난 ‘요람’은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22 절)
 - 이는 아마도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고 묻은 질문이 아닐까?
 -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나봇’의 토지는 어떤 곳인가?
 -
 - ‘평안’을 묻는 ‘요람’의 질문에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고 답했음!
- 4) ‘예후’의 대답을 들은 ‘요람’은 즉시 자신의 병거를 돌려 도망치며, 유다 왕 ‘아하시야’에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23-26 절)
- 참고로 기쁨으로 ‘예후’를 맞으러 갔다가 도망치는 ‘요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 이때 ‘예후’는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 직접 활을 쏘아 그의 심장을 적중시켜 즉사시킴!
 - 이후 자신의 장관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 과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였음! (열왕기상 21 장 참고!)

3. ‘요람’의 뒤만 따르던 유다 왕 ‘아하시야’의 허무한 죽음 (27-29 절)

- 1) ‘요람’을 따라 ‘예후’를 마중 나갔던 유다 왕 ‘아하시야’는 급히 ‘정원의 정자 길’ (‘벧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 이때 ‘예후’는 부하들에게 도망치는 유다 왕도 죽이라고 명령하였음!
 - 그 후 자신은 곧장 이스라엘 성으로 진격하여 ‘이세벨’ 여왕을 죽이고 반란을 마무리함!

2) 도망치던 ‘아하시야’는 결국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부상을 당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므깃도’에서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역대하 22 장 7 절은,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분명하게 기록!!
- 이후 ‘아하시야’의 신하들은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다윗 성에서 장사 지냄.

4.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생을 마감한 ‘이세벨’ 여왕 (30-37 절)

1) ‘예후’가 아들 ‘요람’을 죽인 후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어떤 반응은 보였나요? (30-31 절)

- 30 절 주목! –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후 창 밖을 보며 기다림!.
 - 짧은 한 절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을 보게 됨!
- 이후 성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보자마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외침!
 - 그럼 왜 ‘이세벨’을 이때 ‘주인을 죽인 너 ‘예후’ 라고 말하지 않고, ‘시므리’라고 말했을까?
 - ‘시므리’가 누구였는지 기억!
 - ‘주인을 배신한 악한 종’이란 별명을 얻은 왕!!

➤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왕들

- 1 대: 여호보암
 - 2 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로 2 년간 통치)
 - 3 대: 바아사 ->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 시킴
 - 4 대: 엘라 (바아사의 아들로 2 년간 통치)
 - 5 대: 시므리 -> 술에 취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됨!
 - > 그 후 7 일만에 스스로 방에 불을 지르고 자살함!!
 - 6 대: 오므리 (엘라의 군대 장관 ->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
 - > 사마리아 산을 사서 왕궁을 짓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나라를 발전!
 - 7 대: 아합 (오므리의 아들)
 - 8 대: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 난간에서 떨어져 왕이 된지 2 년 만에 병으로 죽음!
 - 9 대: 요람 (아합의 아들) -> 형이 죽자 왕이 되어 12 년을 통치
- 곧 당시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지 7 일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시므리’라고 비유하며 최고의 저주를 한 것!
 -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저주하는 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됨!

2) 이때 ‘예후’는 ‘이세벨’을 버리고 자기 편이 설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32-33 절)

- 그러자 두 명의 내시가 ‘예후’를 따르겠다고 뜻을 표했고, ‘예후’는 그들에게 즉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함.
-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왕이란 칭호를 들었던 ‘이세벨’은 자신을 수중 들던 종들에 의해 창 밖으로 던져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됨!
- 특별히 이때 33 절을 보면,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왕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심!!!
 -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후’라는 인간도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
 -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합’의 집을 치는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한다 해도 인간을 향한 또한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

3) 한동안 승리를 축하하며 먹고 마시던 ‘예후’는 ‘이세벨’이 왕의 딸이란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해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4-35 절)

- 참고로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 오래 전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당시 베니게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세계 교역의 장이었던 시돈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이세벨’을 혼인시킴!
- 아무튼 ‘예후’가 ‘이세벨’이 이와 같은 시돈 왕의 딸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을 때, 이미 시신은 다 사라지고 ‘두골과 손과 발’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

4) 그 소식을 들은 ‘예후’는 이것은 오래 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6-37 절)

- ‘이세벨’의 시신에 대한 보고를 들은 ‘예후’는 그 순간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 그리하여 젊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
- 참고로 이후 ‘예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름 열심으로 바른 정치를 행하려고 노력함!!
 -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당을 훼파하고, 바알 숭배자들 몰살함!
 - 하나님은 이런 ‘예후’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예후’의 가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4 대까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5.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

6. 중보기도 나눔